

## 학생활동 사전승인 학칙 인권침해 우려...“규정 모호”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아직 개정 안돼

학생복지과 “최소한의 학내질서 유지 위해 필요”

제주대 학칙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제주대 학교 학칙’ 제4장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제1절 제79조에는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79조 제1항에는 “학생회·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인 대상에는 △교내 광고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간행물의 편집과 배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80조(학생간행물의 지도)’에는 “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

생이 발행하는 간행물의 편집은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공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제81조(학생활동의 제한)’에는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2005년 최순영(민주노동당) 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 규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거부감을 내비쳤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예전 유신정권에 있었던 규정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수들 역시 이같은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현(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현재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이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할때 이를 악용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대학본부에서 학생활동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며 “규정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내 상행위 등을 막고 대학 내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이미 국정감사와 국가인권위가 권고 외에도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었다.

제주대신문 2005년 9월 28일자 ‘오래된 대학 규정 개선 필요’ 기사에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관리규정’에 대해 학생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었다.

당시 학생처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학생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불합리한 조항은 검토해 보겠다”면서 “하지만 문서 배포행위나 집단행동 등을 전혀 간섭하지 않을 경우 음란성 및 폭력성 행동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둔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명지 기자



학생자치기구 본격 선거운동 돌입 '좋은일만'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정·유병선 토목공학과 4, 부·홍성훈 영어교육과 4)가 6일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 스토리텔링센터 ‘지역발전’ 대통령상 수상

콘텐츠 개발·관광객 유치 기여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가 지난 9월 24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지역발전주간’ 지역발전공유자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제주대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2010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에서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주관’ 지역발전공유자 시상식에서

이와 함께 제주유배길개발, 유배영화제, 유배음악제, 유배꽃차전시장, 유배밥상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또 유배스토리북, 유배게임, 유배토크멘터리, 유배상품 등 다양한 상품도 개발했으며,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푸른역사) 등의 스토리북을 출간했다.

### 영어우수장학생 선발기준 바뀌... ‘성적향상도’ 반영

1억4천만원 장학재원 마련

수혜 대상자 확대 기대

제주대가 영어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성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영어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학생들에게 기존 등급 위주로 장학금을 주다 보니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는데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제주대는 영어성적의 기준등급에 따라 영어우수장학금을 우선 지급한 뒤 향상된 점수에 비례하여 장학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어우수장학금 1등급 50만원, 2등급 30만원, 3등급 10만원을 기준으로 향상점수가 10점 이상이면 2만원씩 증액 지급해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했다. 종전에는 3단계의 기준 등급향상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장학금으로 줬었다.

이반 조치로 영어우수장학생 선발

대상자도 늘고 혜택을 받는 학생도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 1억2000만원과 발전기금 장학금 2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영어 성적 향상 점수에 비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키로 했다”면서 “학생들의 영어우수장학생 신청도 크게 늘어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모집 인재 유치 본격화

입시설명회·박람회 참가

제주대가 2013학년도 정시모집을 앞두고 우수 신입생 유치에 본격 나선다.

제주대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6개 고교 교사 130여명과 학생 5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입시설명회를 열고 우수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한다.

입시설명회는 제주시내 8개 고교의 경우 아라리조트에서, 시외 8개 고교는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연다.

제주대는 설명회에서 △입시모집 요강 및 입학안내 자료 배부 △대학 입시홍보 동영상 상영 △2013학년도 대학입시설명 △출신 고교 선배 교수와의 만남의 장 △단과대학별·입학·진로·장학·학사 상담 센터 운영 △진학지도 담당교사와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다음달 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도 참가한다. 문의 입학관리과(754-2043)

### KT&G 제주본부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상상장학금 500만원도 전달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는 지난 1일 KT&G 제주본부(본부장 송인철)와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KT&G 제주본부는 임직원들이 모은 ‘상상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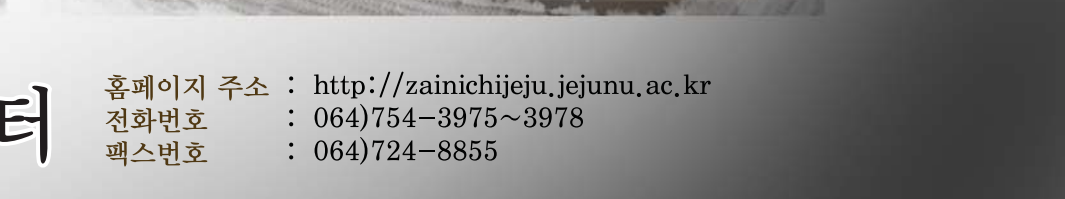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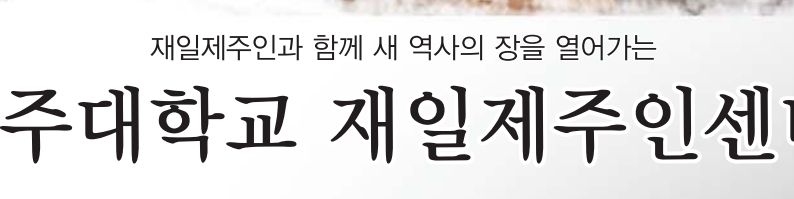
‘KT&G 상상장학금’은 임직원들

이 급여에서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다가 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해 ‘상상펀드’를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상상장학금은 기업 방문 취업캠프 참가 우수 학생들에게 전달돼 미래 핵심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쓰인다.

### 제주대신문 제60기 수습기자 모집

접수 : 대학원동 (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언론미디어센터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 사설

## 기부문화 확산 절실

- 대학발전기금의 현황과 과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그 지역, 그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무척 어려운 시기이다. 몇 년 전부터 정치적인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정책은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 돼 가고,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대학재정의 확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미래의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고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여건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대학재정의 확충'이다. 그러나 열악해지는 대학재정은 교육권과 장학복지 등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대학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재원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공감하고 모든 대학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반회계나 기성회계만 기대하는 대학운영의 시대는 끝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대학발전기금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대 및 일부 수도권 유명사립대들은 그래도 형편이 낫지만 지방대학의 발전기금 확충은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대의 발전기금 확충은 비교적 활발했다. 제주대의 2012년 10월 말 현재의 발전기금은 약정 포함 약 890억원이 조성됐다. 또한 근래 발전기금의 확장추이를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거점 지방공립대 중에서 강원대 다음으로 제주대가 발전기금을 많이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기금 기본재산으로도 전담대 다음으로 많은 300억원 가량을 조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변변한 대기업들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제주출신 재일동포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1세대 재일교포들이 돌아가시면 고향에 대한 추억과 경험이 없는 교포 2세대의 제주에 대한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기금 전략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등 기금 규모가 큰 대학은 전문운영회사를 설립하여 대학 기금을 전담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대학은 공격적인 기금운영을 제한하는 등, 기금 운용에 제도적, 행정적 제약도 많아 대학의 발전기금 모집이나 운영면에서도 매우 초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학 구성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액기부를 통해 기부경험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기부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대학 교직원들이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동문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하며 우리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바로 자신의 일로 알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부를 할 줄 아는 따뜻한 학생을 키워내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 단과대 학생회 입후보 등록 마감... 20일 투표

사범대 입후보자 없어 내달 선거... 교육대는 별도 진행  
생명대와 공과대만 경선... 나머지 단과대는 단독 후보

### 동아리연합회 2팀 입후보

사범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가 모두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는 20일 선거를 치른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에서 주관하며 각 단과대학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범대학은 후보자가 아직 없어 이달말 후보자를 다시 등록 받아 선거를 치른다. 또한 교육대학교 이달말 후보자를 받아 내달 선거를 치른다.

생명자원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두 팀이 등록해 경선을 치른다. △생명대학 '상상이상' 정·강현승(식품자원환경전공 3) 부·이지성(산업응용경제학과 3)과 '폼격있는' 정·현명훈(응용생명공학전공 3) 부·이혁신(원예환경전공 3)이 등록했다. △공과대학은 '주인공' 정·강진우(전기공학 3) 부·송은지(기계공학 3)과 '청춘차렷' 정·김민철(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3) 부·윤의식(건축공학전공 3)이 대결한다.

후보자가 단독 신청한 단과대는 모두 8곳이다. △인문대학 '제법인대' 정·원일권(영어영문학과 3) 부·현우진(사회학과 2) △사회과학대학 '울인원' 정·이현석(법학부 3) 부·문준영(인문홍보학과 2) △경상대학 '가치있는' 정·안진호(경제학과 3) 부·오경수(경영학과 2) △해양과학대학 '지중해' 정·송지훈(해양산업명훈(응용생명공학전공 3) 부·이혁신(원예환경전공 3)이 등록했다. △공과대학은 '주인공' 정·강진우(전기공학 3) 부·송은지(기계공학 3)과 '청춘차렷' 정·김민철(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3) 부·윤의식(건축공학전공 3)이 대결한다.

과 2) 부·허다솜(간호학과 2) △예술디자인대학 'M(music).A(art).D(design).E(energy)' 정·고미정(한국화전공 2) 부·한주연(한국화전공 2)이다.

한편, 동아리연합회 선거에는 △'하나+하나' 정·정영훈(돌다리, 생물관경복지학부 2) 부·김법훈(ACCENT, 기계공학전공 2)와 △'컬러풀' 정·문경환(스킨스쿠버 생물학과 3) 부·김진성(극예술연구회, 생물학과 3)이 경선을 펼친다. 동아리연합회는 7일 저녁 7시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선거를 치른다.

김동현 기자

## 창업동아리 'JUST' 팀 교과부장관상 수상

### 학생창업캠프인업 경진대회

1차 미션에서는 우승



'2012학생창업캠프인업경진대회'에서 JUST팀(임나라·민홍기·양재영·지창도·김당기)이 지난달 31일 '2012산학협력EXPO' 개막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창업동아리 JUST팀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12학생창업캠프인업 경진대회(부제:캠퍼스영웅전)'에서 최종 TOP5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산학협력EXPO' 개막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JUST팀에는 임나라(분자생명공학전공 4), 민홍기(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2), 양재영(인문홍보학과 3), 지창도(해양시스템공학과 1), 김당기(행정학과 1) 등 5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시작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61개 대학 LINC사업단에서 각 1팀씩을 선발해 참가했는데, 지난달 총 5차례의 미션을 통과한 최

종 5개 대학팀에 JUST팀이 당당히 포함된 것이다. LINC사업단 창업동아리에도 활동 중인 JUST팀은 '나만의 기업가마인드를 찾아라'라는 1차 미션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 양채류사업단, 씨푸드사업단 등과 협약 체결

### 식품 개발 정보 교환키로

제주양채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은 지난달 31일 제주국제대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단(단장 강원도립대 박옥연 교수), 제주씨푸드명품RIS사업단(단장 제주국제대 현재석 교수), 보은생물산업 진흥사업단(단장 충청대 김봉각 교수)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사업단은 협약을 통해 △각

사업단 개발제품의 홍보 마케팅 사업 공동 참여 및 제품 유통 지원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인적 및 기술 교류 △참여기업의 현장에기술 발굴과 해결 △식품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성 평가 및 교부가치치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 교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제주양채류 RIS사업단은 2011년 지식경제부 지정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청정 제주산 양채류의 교부가산업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 등을 하고 있다.

### 간호대학 학술제

### 논문 발표·특강 마련

제10회 간호대학 학술제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간호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다.

이 학술제는 간호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간호연구과정에 대한 지식을 길러 학생들이 논문분석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60명이 6개의 팀으로 나뉘 논문을 발표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대처와 간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채종민(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강의가 열린다.

### LINC사업단 산학연 엑스포 1위

LINC사업단(단장 이준백)이 지난달 31일 '2012 산학연 엑스포'에서 전국의 LINC사업단 중 우수전시 평가에서 1등을 차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 취업전략본부 방송 이해 특강

지난 31일 취업전략본부는 이종화 KBS 제주총국장을 초청해 '방송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사람들

#### 임동춘 인문대학장

#### 국공립협의회의장에 선출

임 동 춘 인문대학장이 지난달 26일 제주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 인문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1년간이다.



#### 강덕수 교수

#### 세계인명사전 등재

강 덕 수(경영학과) 교수가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됐다. 강 교수는 외국경영학 학회지에 논문이 수록되는 등 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스 후즈 후 2012년판에 등재됐다.



#### 강민수 교수

#### 말분과 위원장에 선출

강 민 수(제주승마산업RIS산업단장) 교수가 지난달 29일 한우플라자회의실에 개최된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말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오창수 교수

#### '법의 그물망' 펴내

오 창 수(법학과) 교수가 법에 관한 에세이 집인 '법의 그물망' 1,2권을 펴냈다. 오 교수는 변호사 생활과 로스쿨 교수 생활 동안 법률에 대한 단상들을 모아 왔다. 이 책은 법전원 학생들과 사회인들에게 저자가 전하는 법 사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발간됐다.



##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개교 제60주년과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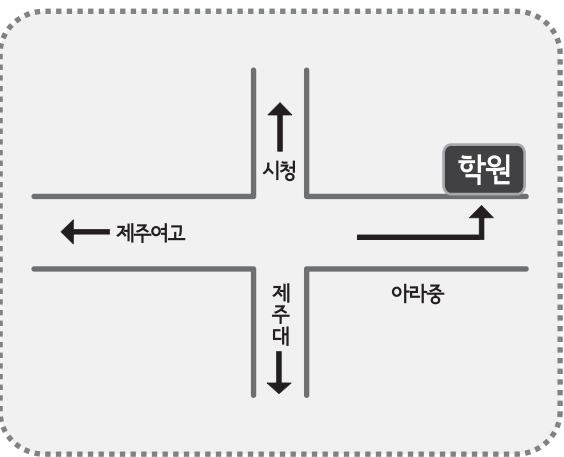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할 것.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 운전면허

##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 통역·번역은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센터에서!

제주대학교 통역번역센터는 통·번역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우수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통·번역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 1. 번역서비스

| 구분          | 언어          | 단가(원)                                     | 비고                                                |
|-------------|-------------|-------------------------------------------|---------------------------------------------------|
| 한국어<br>→외국어 | 영/중/일       | 원본 1자(공백포함)<br>90원~120원                   |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번역료는 해당 언어 들어온 감수료 포함 금액임 |
|             | 외국어<br>→한국어 | 결과물 기준<br>11포인트 25행1배당<br>40,000원~80,000원 |                                                   |

### 2. 통역서비스

| 구분         | 언어    | 1시간<br>이하 | 2시간<br>이하 | 3시간<br>이하 | 6시간<br>이하 | 6시간<br>초과시             |
|------------|-------|-----------|-----------|-----------|-----------|------------------------|
| 통시<br>(2인) | 영어    | 500,000   |           |           | 700,000   | -시간당<br>100,000원<br>추가 |
|            | 중/일   |           | 500,000   |           | 600,000   |                        |
| 순차<br>(1인) | 영어    | 500,000   |           |           | 700,000   |                        |
|            | 중/일   |           | 500,000   |           | 600,000   |                        |
| 수행         | 영/중/일 |           |           | 200,000   | 300,000   | -시간당<br>50,000원추가      |
|            | 일     |           |           |           |           |                        |

\* 모든 요금은 1원 기준임.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설 통역번역센터

☎ (064)754-2437, E-mail:coti@jejunu.ac.kr

## “참여 프로그램 통해 유대감 다진다”

인터뷰 총대의원회 ‘의사소통’ 입후보자 정-강대영 부-변재현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학을 감사하는 총대의원회 선거가 오는 13일에 진행된다.

총대의원회에 입후보한 2팀 중 ‘의사소통’(정-강대영 전자공학과 4, 부-변재현 동물생명공학전공 4) 팀을 지난 2일 본사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출마동기는.

“총대의원회는 각 학과 1,2,3학년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학과대표라는 직책에 대해 확실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자부심 및 소속감을 더 높이기 위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도록 돕겠다. 이번 ‘기존하나’ 총대의원회에서 학과 감사 등 다양한 정책들이 처음 시행된 것들이 많은데 이 정책을 수정·보완해 총대의원회를 발전시키겠다.

슬로건인 ‘의사소통’은 사전적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뜻이 통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함(通)’이다. 유권자인 일반학우들에게 총대의원회를 알리고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고자 한다.”

▶입후보자가 생각하는 총대의원회의 역할은.

“총대의원회는 현재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감사평가에 있어 학생들에게 결과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과대표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슬로건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총대의원회가 되겠다.”

▶올해 ‘기존하나’ 총대의원회를 평가하자면.

“현재 총대의원회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격려의 마음이 더 앞선다. 학과대표 오리엔테이션 실시, 시험기간 학과대표 간식제공, 무료보도포의 개최 등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이 많았다. 총대의원회는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당선된다면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성원간의 소통이 더욱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

“총대의원회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공약도 물론 있으나 학과대표 등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약이 보다 중심적이다. 대의원회가 당선된다면 2013학년도 학과대표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측면이 많다.

같이 총대의원회를 이끌 2013학년도 학과대표뿐만 아니라 올해 학과대표도 함께 총대의원회를 만들어나가고 싶다. 내년엔 당선된다면 ‘명예 학과대표제’를 시행해 대의원증을 발급, 대의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학과대표 오리엔테이션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3월, 9월 뿐만 아니라 2월에도 시행해 학과대표들이 선출되기 전에 미리 학과대표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리더로서 갖춰야할 지식과 소양에



제29대 총대의원회 선거에 경선을 치를 ‘의사소통’ 팀. 정후보자 강대영(오른쪽)씨와 부후보자 변재현씨가 화이팅을 하고 있다.

## 모바일앱·페이스북 등 SNS로 학우들과 소통 강화 명예학과대표 제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 부여 학과대표 대상으로 리더십 강좌 개설 추진

대해 알리고자 기초교육원과 문화광장과 같은 리더십스쿨강좌 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학군단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총대의원회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참여가 적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모바일앱, 페이스북을 통해 총대의원회의 사업을 알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총대의원회를 어려워하는 학과대표들이 있다. 물품을 대여해주는 등 학과대표들에게 스트레스 없이 다가서겠다. 예를 들어, ‘게릴라 티타임’을 기획하고 있다. 특정 시간에 학과대표를 찾아가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고자 한다. 총대의원회가 먼저 학과대표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겠다.”

▶공약 중에서 ‘명예학과대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은 표를 받기위한 인기영합주의적인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명예 학과대표라 하면, 현직 학과대표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인가.

“대의원증을 통해 할인 등의 학과대표만의 혜택을 부여해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한다. ‘한번 학과대표는 영원한 학과대표’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이식’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함께했던 학과대표와 내년에 함께 할 학과대표들이 서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련

했다. 전 학과대표들에게 총대의원회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한 보답의 일환이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다.”

▶정책토론회의 역할은.

“당시 총대의원회의 일원으로서 정책토론회를 열심히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운동본부 인원들만 자리를 차지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정책토론회가 단합대의의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정책토론회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리로 만들겠다.”

▶올바른 학생회 선거를 위해서는.

“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돈 선거, 학연, 지연 선거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학연, 지연 선거를 우리 힘으로만 고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야 할 문제다. ‘기존하나’ 대의원회에서 올바른 선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큰 도움이 됐다.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한마디.

“중앙자치기구로서 진심이 담긴 의사소통을 통해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 모든 학과대표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겠다.

오는 13일 많은 학과대표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한다. 또한 총대의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기자

‘길라잡이’ 총대의원회 입후보자는 ‘공약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제주대신문>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

## “소통·홍보 강화… 여학우 요구 발굴해 개선”

인터뷰 총여학생회 ‘청춘걸고’ 입후보자 정-박지혜 부-고수연

2013학년도를 이끌어갈 총여학생회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이 날 13개 단과대학에서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2일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입후보자(정-박지혜 체육학부 3, 부-고수연 한국화전공 2)를 본사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출마동기는.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권리 신장과 복지를 위해 만든 기구이다. 자연과학대학 여성국장직을 맡으면서 총여학생회가 하는 업무들을 알게 됐다. 그 일을 하면서 여학생들이 총여학생회를 찾아오기 꺼려하고 거리감을 갖는다고 느꼈다. 그런 거리감을 없애고 소통을 통해 여학생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

슬로건인 ‘청춘걸고’의 뜻은 ‘20대 청춘 여학우가 함께 한다’라는 뜻과 ‘청춘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번 뿐인 여학생들의 청춘을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돕고 싶다.”

▶올해 ‘여자친구’ 총여학생회를 평가하자면.

“올해 총여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같이 했었다. 참여율이 낮았던 아라 여성 축제를 없애고 ‘특별한 사람들의 강’, ‘여학우의 날’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도를 높이려는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유익한 행사가 홍보 부족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여자친구’ 총여학생회 뜻이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다. 하지만 슬로건의 취지와 다르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존할 수 있었던 장이 부족했다고 본다.

우리는 일반 아라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SNS 계정,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도도 높이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먼저 캠퍼스 내에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화장실은 여자들에게 비밀스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화장실 창문에 있는 시트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많다. 이로 인해 밖에서 화장실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투명 시트를 모든 화장실마다 부착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제2도서관의 경우 남녀 화장실이 나오는 지점이 맞닿아 있다. 칸막이가 없어 나오면서 보일 수 있기에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실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여학생들이 주로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데 이 경우 가방 등의 소지품을



제29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청춘걸고’ 팀. 정후보자 박지혜(왼쪽)씨와 부후보자 고수연씨가 화이팅을 하고 있다.

## 화장실 시설 개선 앞장… 정책공모전도 시행 여성문제 해결 방안 논의… 남학우 참여 적극 유도 열심히 활동해 총여학생회 필요성 절감케 할 것

놔둘 공간이 없다. 또 세면대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로 간이거울과 선반을 설치해 공간을 만들어 화장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다음으로 정책 공모전을 통해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각 단과대학의 부족한 부분을 알기 위해 여학부장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활발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총여학생들의 공약들을 보면 여학생들의 권리 신장과 관련 없는 공약들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총학생회가 내걸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총여학생회 존재에 회의감을 갖는 학생들도 있다.

“총여학생회는 원래 여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는 기구이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복지시스템도 많이 향상됐다. 예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총여학생회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차별 해소보다는 남자와 여자 본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매꿔주기 위해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학생의 권익만 위해 나선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핑크리본 캠페인(유방암), 퍼플리본 캠페인(자궁경부암)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 또 YMCA와 연계해 취업박람회 등도 개최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단과대학 여성국장과 함께 회의해 여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남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아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을 만들겠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출산, 자녀 양육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여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논해보고 알아야 한다. 이 때 의논하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기구가 총여학생회라고 판단한다.”

▶예년과 다르게 총학생회도 단선이라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선일 때는 현수막, 선거물들이 많이 나온다. 또 그만큼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올해는 단선이라 선거 열기가 치열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을까봐 걱정된다. 우리가 발빠르게 뛰어나고 정책을 제대로 알린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 한마디.

“총여학생회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여학생이 많다. 이는 단과대학 여학부장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우리는 단과대학 여학부장 및 여학우와 잦은 만남을 갖고 소통하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학생들이 스트레스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총여학생회’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오는 20일에 열리는 총선거에 투표에 많이 참여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 - 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 sw5030@hanmail.net

